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 여기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November, 2019 | 팽서연 기자

page 1 of 4

| 문화 리뷰 |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 여기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글 팽서연 기자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니고, 전쟁도 가난도 없는 끝없이 즐거운 세상. 우리가 품은 낭만적인 희망은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과거의 한 부분이 되었다. 희망 가득했던 나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와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곳에 뒤섞여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간. 4년 만에 열리는 양혜규의 국내 전시 <서기 2000년이 오면>이 11월 17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진행된다.



◁(p.136)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시 전경. 이미지 제공 | 국제갤러리, 사진 | 안천호
 (p.137, 좌상) <좌양혜규, 솔 르윗 동차동차-입방체 하나 빠진 입방체 위에 6 단위 입방체, 2018 >양혜규,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우) 양혜규, 솔 르윗 동차동차-열린 기하학적 구조물 2-2, 1-1 위에 5 단위 십자, 2018 >양혜규,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p.137, 좌하) 양혜규, 양술규, 양술규, 보물선, 1977, 종이, 수채물감, 크레파스, 액자, 54.5x69.5cm, Private Collection, Seoul >양혜규, 양술규, 양술규, Courtesy of Kukje Gallery
 (p.137, 우) 양혜규, 소리 나는 운동 지도, 2019 >양혜규,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과거와 미래의 2000년

“다가오는 서기 2000년은 모든 꿈이 이뤄지는 해”, 전시장 입구에 다가서면 밝고 희망찬 가사의 오래전 가요가 관객을 맞이한다. 가수 민해경이 1982년에 발표한 “서기 2000년이 오면”이다. 이번 전시의 제목부터 전체적인 전시 내용을 관통하는 이 옛 노래는 전시장을 찾아온 관객에게 여러 시간이 얽힌 공간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노래와 전시 제목을 통해서 양혜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2000년’은 보는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해다. 입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는 2000년이 오기 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무언

가 새로운 일이 드라마틱하게 생길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뽕뽕 담겨 있다. 그렇지만 이미 20여 년이 훌쩍 지나 버린 지금 시점, 2000년은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다. 노래 가사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그 미래가 훨씬 지난 시점에서 ‘2000년’을 바라보게 된다. 작가가 노래와 함께 보여주는 ‘2000년’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낭만 가득한 노래와 함께, 전시장 입구 쪽에는 하나의 그림이 관객을 맞이하며 전시장의 또 다른 인내가 된다. 양혜규가 어린 시절 두 동생과 그린 그림 “보물선”(1977년 추정)이다. 어린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마

음껏 펼치며 크레파스로 그려놓은 이 그림은, 흘러나오는 노래와 어우러지며 시공간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보물선” 그림을 보고 전시장에 들어서서 벽면을 가득 채운 이미지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두 이미지가 어딘가 비슷하게 느껴진다. 마늘, 고추 다발 같은 토속적인 이미지와 함께 블랙홀을 연상시키는 기하학적인 그래프, 나무 등의 자연 이미지, 그리고 ‘미래’를 연상시키는 로봇, 기계와 같은 이미지 등. 연관성 없어 보이는 사물들이 이리저리 뒤영겨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작가가 어린 시절 그렸던 상상의 “보물선” 그림을 현재의 시점에서 큰 화면으로 재해석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과거의 향수와 미래의 새로운 모습들까지, 전시 공간 안에 서 있는 관람객은 과거와 미래를 한데 모아 그들이 지금 위치한 '현재'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과거와 미래라는 상반된 시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2000년이라는 특정한 시간은 전시장 공간에서 새로이 재구성된다. 양혜규는 이러한 시공간에 복합적인 감각들을 엮어내어 문학적이면서도 일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우리에게 선보인다.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

〈서기 2000년이 오면〉에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적 요소와 마주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시공간에 대한 시선은 문학적이고 감성적으로 관람객에게 다가가 마음을 사로잡고, 공감각적인

장치들은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 낸다. 시각, 청각을 넘어서 후각과 촉각까지 자극하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 관람객은 여러 감각을 깨우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전시 공간을 감싸는 거대한 벽지 이미지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곧바로 시선을 잡아 끈다. 그와 함께 벽을 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원형의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홀로그램 시트지는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수많은 방울로 만들어진 천장에 매단 "소리 나는 운동"(2019), 비시각적 작업인 "융합된 분산의 연대기-뒤라스와 윤"(2018)을 작가가 주관적으로 편집한 텍스트 묶음 등 다양한 시각적 작업들부터, 입구의 노래를 포함한 각종 음향 효과들은 공간에 청

각적으로 입체감을 준다.

또한 전시장 곳곳에 놓인 은회색의 짐 볼(gym ball)들과 한 쪽 벽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그(fog)는 관객이 건드리는 대로 이리 저리 움직이고, 은은한 향기를 뿜으며 후각을 자극한다. 이 짐 볼들은 홀로그램 타공 시트지를 이용하여 제작된 격자무늬의 장기관 위에 놓여 있는데, 관람객은 짐 볼 위에 앉아서 전시를 감상하거나 직접 이동시키는 등 자유롭게 만져볼 수 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감각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전시를 더욱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적인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양혜규는 이번 전시에서 운동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재미를 제공한다. 전시장 가운데에 자리한 백색의 구조물은 "솔 르윗 동차동



車”(2018~) 연작으로, 기존의 블라인드 작업에 운동성을 더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작품 외부에서 직접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두 명 이상이 함께 조종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짐볼과 함께 이러한 설치 작품들은 관람객의 직접적인 행위를 유도한다. 그리고 행위를 통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품의 감촉을 생생하게 느끼고 전시를 더욱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다.

양혜규는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를 잠시 불러 세우고는, 과거의 시점에서 바라본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현재의 우리에게 제시한다. 감성적인 향수를 끌어오면서도 동시에 오감을 자극하고 운동성 짙은 설치물들을 이용하여 더

욱 풍부한 전시를 선보인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작가의 주관적인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양혜규가 제시하는 2000년은 무엇보다 모호하면서도 상징적인, 과거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겹쳐진 새로운 시간이 된다.

양혜규(1971년~)는 2018년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독일의 권위 있는 미술상인 볼프강 한 미술상(Wolfgang Hahn Prize)을 수상하였다. <무용 선생(Teacher of Dance)>(옥스포드 미술관, 옥스포드, 2011), <타원과 원(Ovals and Circles)>(상탈 크롬 갤러리, 파리, 2013), <한시적 영속(Temporary Permanent)>(바바라 빈 갤러리, 베를린, 2015) 등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해 왔으며 베니스 비엔날레(2009), 시드니 비엔날레(2018) 등 대형 국제제에도 참여해 왔다.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시 전경,
이미지 제공 | 국제갤러리, 사진 | 안천호